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진안군, 최대 1억원 확대 실시… 오늘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서 상담 시작

진안군은 관내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해 내년 1월부터 기준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증액하는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확대 시행에 밝혔다. 18일부터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상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이란 성실하지만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에 따라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까지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신용 보증을 하고 진안군에서 최대 5년간 3%의 이자 보전을 하며 관내 금융기관이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진안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이다.

진안군은 소상공인을 위해 전라북도 단위 최대 규모로 6억원의 출연금

을 출연하고, 전북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2억 5,000만원을 출연해 총 11억원 출연금의 약 12배인 최대 137억원 규모로 대출 가능 금액을 확보했다.

전춘성 군수는 "간접 지속된 경제위기와 부족한 대출한도로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번 희망더드림 특례보증지원 확대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유공 우수기관 선정

매년 4천여 농가 이용… 농기계 구입 부담 덜어

무주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포상을 받는다고 밝혔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무주읍과 안성면, 무풍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3곳을 운영 중으로 '승용여취기'를 비롯한 '잔가지파쇄기'와 '굴삭기' 등 115종 540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농기계 순회 수리와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장비 실태 교육도 병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또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여성화에 따른 농기계 작업의 어려움을 해소하



대행은 올해만 467농가(197㏊)가 이용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신상범 소장은 "농기계 대여를 통해 고가의 장비 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농작업 대행으로 농기계 작업 부담까지 덜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기계 구입 비용 경감과 밭작물 기계화율 향상에 주력하고 임대사업소 휴일 근무를 통해 농업인 영농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는 무풍·안성분소 일시 휴업 기간으로 무주군은 이 기간 농기계를 정비해 농업기계 임대 만족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장수군의회(의장 장정복)는 지난 15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16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회기를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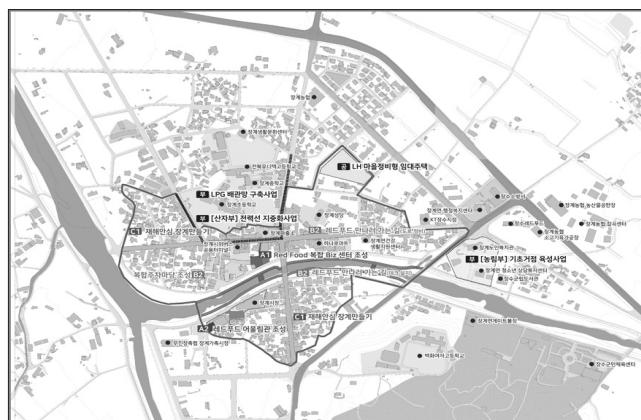
장수군의회는 지난 15일,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16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된 회기를 마무리했다.

심도있게 심사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에 대해 의결했다.

특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3건의 3억 1,450만원을 감액·결정한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원안가결했으며, 내년도 교부세를 비롯한 국비 대폭감소에 따른 군의 예산 절감 편성 기조에 따라 예산심사 과정에서의 별도 증액 요구 사업비는 없는 것으로 뜻을 같이 했다. 이에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약 346억원이 감소된 4,275억원이다.

또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49억원이 감액된 5,137억원으로 장수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원안 의결했으며, 본 회의에 앞서 정례회 기간 중 이뤄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모범적으로 감사에 임한 이성재 산림공원과장과 기획조정실 백슬기 주무관에게 장수군의회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 장계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도

장수군, 도시재생 추진 '탄력'

정부 공모사업 선정 국비 138억원 확보… 장계면 장계리 일원 추진

장수군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3년 도시재생사업(특화재생)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13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앞으로 장계면 장계리 일원에 총사업비 242억 원을 투자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계 르네상스-Red Food로 다시 피어나는 장계'를 주제로 공모한 이번

도시재생사업은 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장계면 장계리 일원 27만 5,690㎡ 부지에 조성될 예정으로, RedFood 특화거점 조성, 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 RedFood의 고장 장계 만들기 3개 단위 사업과 6개 세부 사업 계획으로 추진된다.

주요 사업은 레드푸드 지역 순환 경제 기반 구축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데드푸드 복합 BIZ센터 조성 스데드푸드 어울림관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 및 주민 편의를 위한 스데드푸드 만나

러 가는 길 정비△복합 주차마당 조성△재해 안심 장계 만들기△스데드푸드 주민 연량 강화 및 체계적인 성과 관리 사업 등이다.

군은 공모 선정을 위해 정부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컨설팅, 전북도 등과의 수시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보완해 왔다.

특히 장계 훈훈한 장수군수는 지난 11월 16일 국토교통부 최종 발표 평가에 참석해 관련 사업에 대해 직접 발표를 진행하고, 평가위원 질문에 답변하는 등 장수군의 도시재생사업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시 재생 예비사업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결과물"이라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 확대

진안군은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이 통과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이 2024년 2월 고지분(1월 사용분)부터 두 자녀 이상 가정과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먼저 다자녀 감면 대상 확대는 기존 '셋째 자녀 이상 가정 중 가장 어린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월 상수도 사용량 최대 10톤 감면'으로 추진한다.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확대됐으며 감면 내용도 기존 기초 수급자(생계, 의료), 장애인 감면에 맞춰 최대 10톤 감면으로 통일해 형평성

을 제고 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감면 신설이다. 이는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관내 약 850세대에도 월 상수도 사용량 최대 10톤 감면을 2024년 2월 고지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누수감면 또한 해당 월 누수금액의 50% 감면에서 누수발생 직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해 누수된 수량에 대해 50% 감면으로 변경했고, 감면되는 누수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했다.

공동주택은 관리실이나 입주자 대표가 매월 감면세대의 상수도 사용량을 상수도과로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마무는 모든 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 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옥),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

